

【2002 충청도보체험단 문화유산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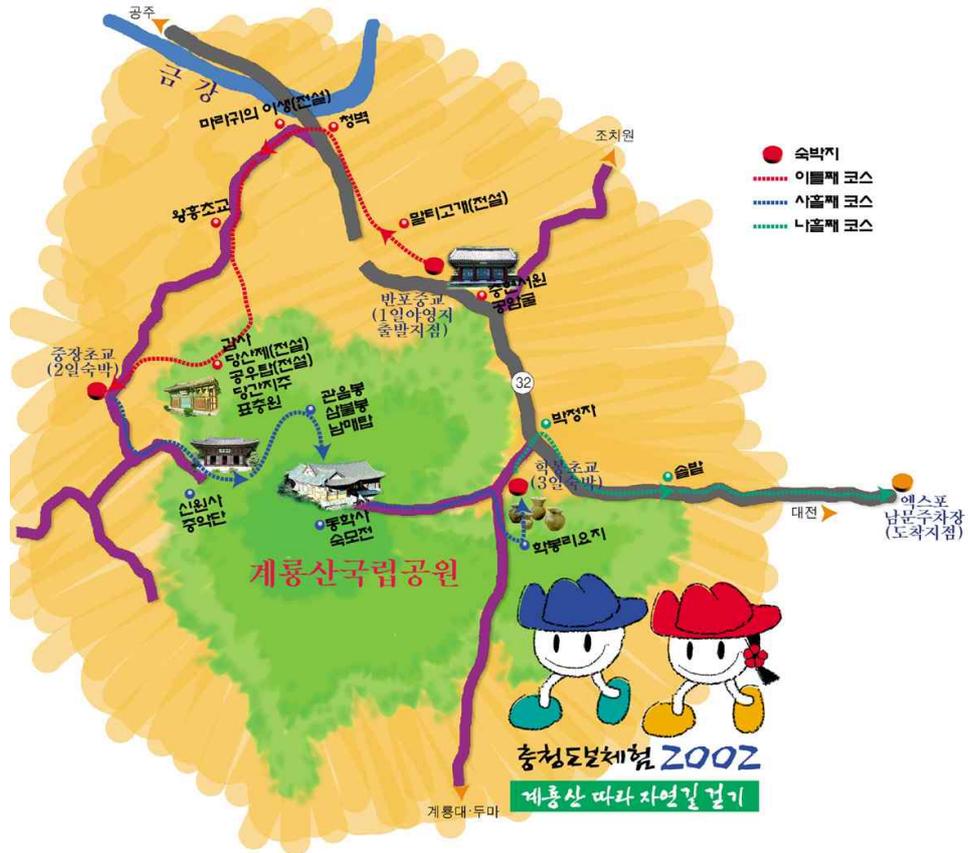
계룡산 길 따라
찾는
우리 문화유산

2002년 7월 25일 ~ 28일

▷ 후원 및 자료제공 ◁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



★ 본 자료는 충청도보체험 2002 “계룡산 따라 자연길 걷기”를 후원하기 위하여 충남역사문화연구소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주관 : 충청도보체험단

후원 : 자연과 문화를 사랑하는 모임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

성심당 FS.

기간 : 2002년 7월 25일 ~ 7월 28일(3박 4일)



『대동여지도』 중 계룡산 주변

계룡산 길 따라 찾는 우리문화유산

제공 : 충남역사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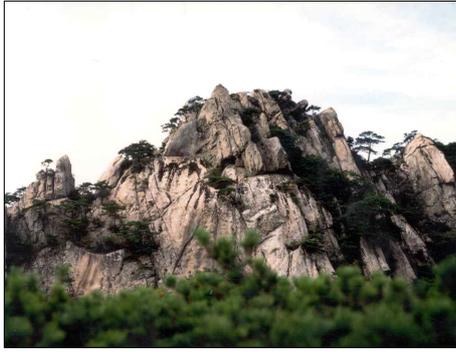
1. 계룡산은 어떤 산인가? / 1
2. 계룡산의 유적과 그 의미 / 7
3. 공암마을의 중심에 우뚝 선 충현서원 / 8
4. 공암의 마을유래와 고청굴(공암굴) / 10
5. 마티고개 전설 / 11
6. 청벽과 말아구의 이생전설 / 12
7. 갑사 입구의 당산제 전설 / 14
8. 계룡산의 으뜸 절 갑사 / 15
9. 갑사 공우탑 전설 / 18
10. 신원사와 중약단 / 19
11. 계룡산 산울림 전설 / 20
12. 구룡사 절터와 남매탑 / 21
13. 동학사와 숙모전 / 23

1. 계룡산은 어떤 산인가?

충청인의 마음속에는 계룡산이 있다. 가장 높은 상봉(천왕봉, 845m)을 비롯하여 연천봉(740m), 삼불봉(750m), 문필봉(796m) 그리고 관음봉 · 황적봉 · 도덕봉 · 신선봉 등으로 이어지는 계룡산 자락은 공주 · 대전 · 논산에 걸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크게 보아 7개의 계곡과 3개의 폭포가 있고, 골짜기에는 너무도 익숙한 동학사 · 갑사 · 신원사 같은 고찰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천왕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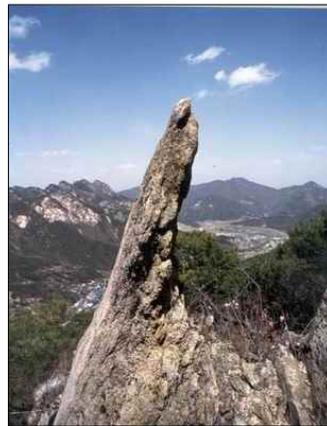
수정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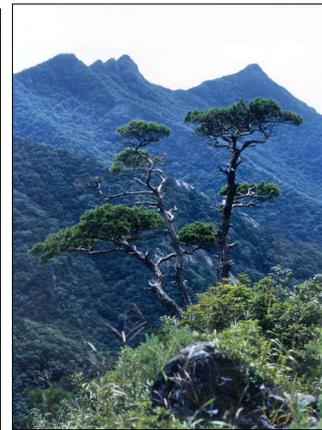
서문다리

현재 지리학 교과서에는 “차령과 노령 두 산맥 사이에 이룩된 잔구성 산지로서 석영 반암이 용기한 균봉이 장관이다.” 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조상들은 금남정맥이 금강에 닿아 용틀임하는 명산으로 보았다. 백두대간이 지리산에 이르기 전 한 갈래가 북으로 치닫는데, 주맥이 대둔을 거쳐 계룡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험한 돌산으로 이어진 연봉이 마치 닭 벼슬을 쓴 용과 같다’ 해서 계룡이라 불렀다는 사실이 더 익숙하다.

계룡산은 일찍부터 나라에서 주목한 명산이다. 백제 때 이미 계룡(鷄龍) 또는 계람산(鷄藍山) 등의 이름으로 바다 건너 당(唐)나라까지 알려졌으며,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큰 절이 창건되었다고 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5악 가운데 하나인 서악(西岳)이었다. 우리 전통신앙에는 산천신앙이 면면이 이어진다. 조선시대의 경우, 계룡산 신원사에 위치한 계룡산사 또는 중악단이 바로 국가에서 제사를 올리는 곳이었다.



항적봉 솟대바위



문필봉

한편 조선시대가 시작될 때 계룡산은 새로운 서울로 정해져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 ‘새로운 도읍의 안쪽’이라는 신도안[新都內]이라는 지명은 거기에서 유래한다.



신도안 철거- 대궐터 주춧돌1



신도안 철거 - 대궐터 주춧돌2



대궐터 추춧돌(현재)

풍수도참 사상에서 얻어진 명성은, 조선왕조의 새로운 서울 후보지였다는 사실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런 가운데 조선시대 민간에 널리 알려진 「정감록」에 계룡산을 주목하였고, 일반인들은 난리를 피하여 살 수 있는 낙토로 여겨 물려들었다. 근대 이후 「정감록」에 기대어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속에서, 또한 계룡산은 신흥종교들의 본산이 되었다.



정도령 송덕비



단군전



천진교총본부



천지대안교

「택리지」를 쓴 조선후기 실학자 이중환(李重煥)은 “산은 반드시 빼어난 암석으로 봉우리가 되어야 수려하고 물도 또한 맑다. 그리고 반드시 강이나 바다가 서로 모이는 곳에 터가 되어야 큰 힘이 있다” 하며, 나라안에 이런 곳으로 4곳을 꼽았다. 개성의 오관산, 한양의 삼각산, 문화의 구월산과 함께 계룡산이 속한다. 계룡산은 “웅장함에서는 오관산만 못하고, 수려함에는 삼각산 보다 못하지만, 그 맥이 멀고 깊어 정기를 함축하였다.”고 했다.

계룡산을 노래한 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빼어난 것으로 조선 성종 때의 서거정이 읊은 「공주십경시」(公州十景詩) 가운데 「계룡산의 한가로운 구름」(鷄嶽閑雲)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계룡산 높고 높아 푸른 층층 솟았는데
산에는 못이 있어 용이 살고 있고
내 일찍이 이 산 속에서 놀아보았더니
구름 모여 비가 되어 천하를 적실 제는

맑은 기운 금실금실 장백(長白)에서 달려왔네.
산에는 구름 있어 만물을 적셔주네
신령스러움 다른 산과 사뭇 달랐네
용은 구름을 부리고 구름은 용을 따르더라

계룡 팔경

· 제1경 천황봉의 일출

대전, 공주, 논산의 전역과 주변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는 계룡산 천황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을 처음으로 꼽는다.

· 제2경 삼불봉의 눈꽃

세 부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삼불봉에서 보면 쌀개봉~천황봉~연천봉으로 이어지는 능선들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하다. 그리고 동학사계곡과 갑사계곡도 한눈에 들어와 계룡산의 전모를 볼 수 있다. 그 풍광이 사철 아름답지만, 그 중 한 겨울의 눈꽃(雪花)이 피었을 때를 최고로 친다.

· 제3경 연천봉 낙조

계룡산의 서쪽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연천봉에서 서녘 들판으로 떨어지는 석양을 일컫는다. 저녁 노을이 물들 때 산야는 붉게 타고, 멀리 백마강 물줄기가 은빛으로 반짝인다.

· 제4경 관음봉의 한가로운 구름

계룡산 중앙의 봉우리 관음봉에서 하늘을 떠다니는 한가로운 구름을 말한다. 마치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다.

· 제5경 동학사 계곡 신록

쌀개봉, 장군봉, 황적봉 등으로 에워싸인 깊은 계곡으로 나무가 울창하며, 봄철 신록은 빼어난 절경을 이룬다.

· 제6경 갑사계곡 단풍

갑사계곡의 가을은 아름답기로 이름이 높다. 옛부터 “春 마곡, 秋 갑사”라 하여 가을 단풍으로는 갑사를 꼽는다.

· 제7경 은선폭포 운무

옛날 신선들이 폭포의 아름다움에 반해 숨어 지냈다는 전하는 은선폭포는 절벽과 녹음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특히 이 폭포는 안개가 자욱할 때의 풍광이 제일이다.

· 제8경 오늬탑 명월

남매탑이라고도 불리는 오늬탑에는 멸망한 백제의 왕족과 호랑이가 업고 온 여인과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전한다. 이 탑에서 관망하는 달빛이 계룡의 마지막 절경이다.



천황봉 일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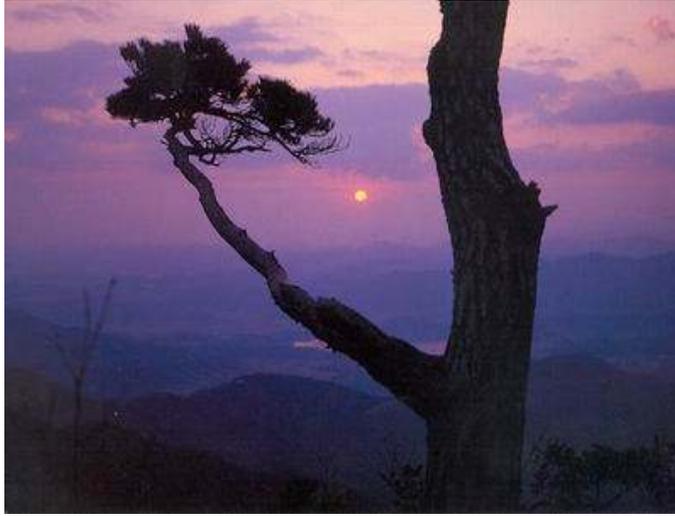
삼불봉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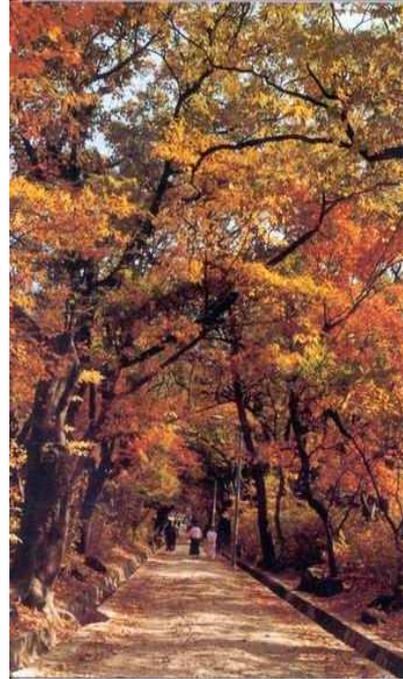
동학계류신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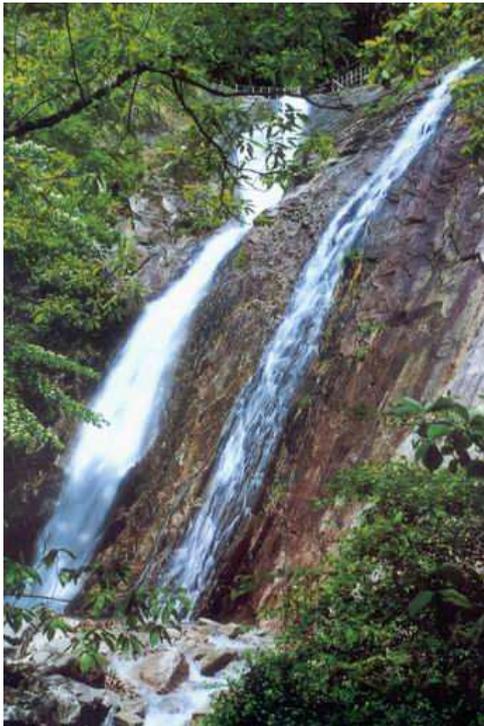
관운봉 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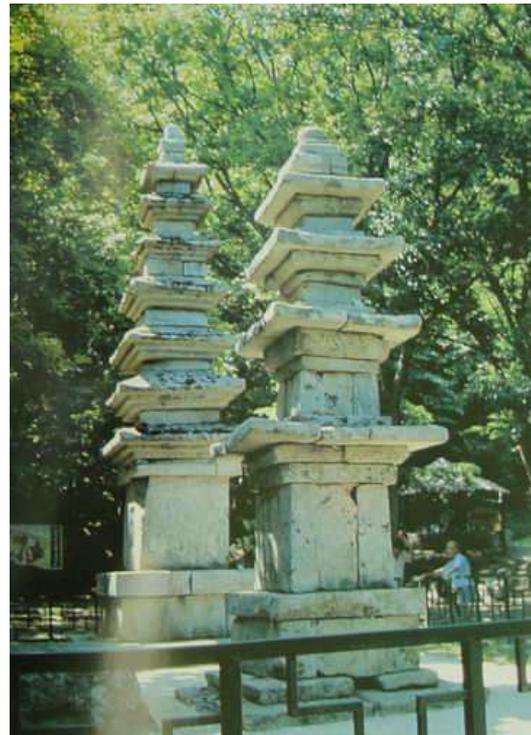
연천봉 낙조



갑사계곡단풍



은선폭포



남매탑

2. 계룡산의 유적과 그 의미

계룡산은 백제이래 중부지역의 중심이 되었던 명산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계룡산은 5세기 후반 백제가 공주로 수도를 옮기면서 부각된다. 이로 인하여 계룡산은 단순히 한 지방의 명산이 아니라 국도의 진산(鎭山), 서울을 감싸 에워싸는 산악으로 격이 높아졌다. 그리고 백제가 망한 후에도 계룡산은 호서 지방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고, 불교의 많은 사찰을 거느린 요람으로 번창하게 되었다.



천황봉 산제단



천황봉 성화채취

이미 살펴보았지만, 계룡산은 크게 국가 제사를 드리는 명산, 불교문화 성지, 그리고 풍수도참 신앙의 요람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끈다. 그러나 놀이 삼아서 계룡산을 찾는 발길 속에서, 계룡산의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화유적들은 소외를 받는다. 수려한 산세를 즐기는 산행의 묘미에 선조들의 유산이 묻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유적들은 갑사와 동학사, 신원사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사찰이라도 갑사와 신원사, 동학사는 그 성격과 문화적 흔적이 서로 다르다. 갑사의 부도와 칠당간, 대웅전, 동종은 신라 말기 이후 계룡산의 불맥(佛脈)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비하면 계룡산 서남쪽 신원사에는 불교와 더불어 무속적인 당곳, 그리고 중약단의 계룡산신 제사와 같은 민간신앙의 풍모가 짙게 배어 있다. 비구니의 수련장으로 유명한 동학사에는 숙모전과 삼은각 등 유교의 내음이 먼저 우리를 맞이한다. 동학사가 유교와 함께 하였던 탓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글 뒷부분에서 하나씩 설명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계룡산 문화의 수수께끼는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계룡산 북쪽의 구룡계곡(상신리)에 위치했던 구룡사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큰 사찰이 일찍부터 그 골짜기에 조영되었으며, 또한 왜 후대에 이어지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후일 밝혀져야 할 숙제

로 남겨두는 바이다.

조선시대 계룡산 일대에서 가장 발달했던 분청사기 또한 흥미롭다. 계룡산 동쪽 산록에는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 말에 이르기까지 도자기를 제작하던 요지가 많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철화분청사기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어 ‘계룡산 분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계룡산 분청은 분청사기가 점차 조선백자로 변모하는 가운데,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대량생산하였고, 또한 활발하고 자유로운 문양을 새긴 우수작으로 평가를 받는다.



구룡사지터



학봉리 도요지

3. 공암마을의 중심에 우뚝 선 충현서원

대전에서 동학사 입구의 박정자를 지나 공주방면으로 마티터널로 가는 오르막 왼편에 공암이라는 마을이 있다. 반포면 소재지이기도 한 이 마을의 중앙에는 기와 담장에 둘러 쌓인 붉은 색을 칠한 전통가옥이 있다. 가을철이면 뒤뜰에 있는 여덟 그루 단풍나무 고목이 타는 듯이 붉게 물든다.



충현서원

이 가옥을 궁금해 하지만, 정작 찾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다. 바로 이곳이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세워진 서원, 충현서원(忠賢書院)이다. 공암은 조선시대 사학교육기관으로, 뛰어난 학자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또한 도서관 기능도 담당했던 지방문화의 산실인 서원이 있었던 마을이다.

충현서원은 출생담과 기이한 행적으로 조선후기 사랑방에서 이야기거리를 제공했던 고청 서기(孤靑 徐起, 1523~1591)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서기 선생은 한미한 출신으로 홍성에서 태어나, 이소재 이중호에게서 성리학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중호는 토정 이지함과 한훤당 김굉필의 학통을 이은 인물이다.

서기는 이지함과 함께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기도 했고, 장년기에는 홍성에서 향약을 실시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지리산으로 옮겨가기도 하였다.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공암에 정착하여 69세에 죽기까지 19년간을 살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공주의 선비문화 형성에 큰 공헌을 했다. 공암에 살 때 선생은 스스로 ‘고청봉에서 나무하는 늙은이 [고청초로(孤靑樵老)]’라고 자처하였으며, 남들은 ‘고청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선조 14년(1581) 그의 제자들이 주도하여, 당시 공주목사 초간 권문해의 지원(쌀과 콩 50여 휘[斛(곡), 1휘는 10말])을 받아 서원을 세웠다. 창설 당시는 공암서원(孔巖書院)이라 했으나, 인조 2년(1624) 사액을 받았다. 즉 「충현서원」이라는 국왕의 편액이 내려지고, 토지 등 관의 경제적 후원이 보장된 것이다.

창설 당시 공암서원에는 중국의 주자(朱子)를 중앙에 모시고, 공주의 학자 석탄 이준오·한재 이목·동주 성제원을 같이 모셨다. 주자가 모셔지고, 충현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공인을 받으면서 전국 유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충현서원은 17세기 중반까지도 당색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역 명현들을 추가로 모시는[追配] 과정에서 충현서원은 서인-노론 계열의 서원으로 바뀌어 갔다. 17~18세기에 충현서원에 추가로 모시고자 했던 인물로는 고청 서기, 중봉 조현, 둔옹 박희성, 사계 김장생, 탄옹 권시,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태, 우암 송시열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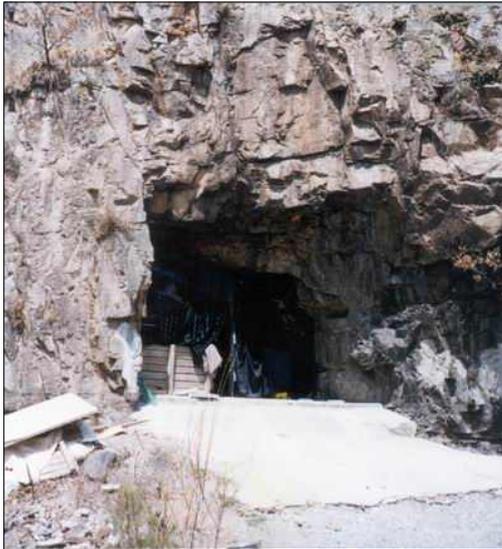
그 가운데 서기, 박희성, 권시, 이유태는 배향되지 못했다. 이들 3인은 모두 공주가 고향이고 충현서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의 공헌이 많았음에도 모시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에 모셔진 인물은 오히려 충현서원과 관련이 적다. 김장생·송시열 등은 단지 ‘머무른 자취가 있다[杖屨處]’는 명분으로 배향되었다. 결국 모셔진 인물을 따르는 후학들이 서원에 대한 영향력을 장악한 때문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고종 8년(1871) 흥선대원군이 47개소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서원을 정리할 때, 「충현서원」도 철폐되었다. 이 때 숙종 38년(1712)과 정조 14년(1790)에 그려진 주자 영정 [초상화]은 공주향교로 옮겨졌다. 그 후 다시 연정(蓮亭)으로 옮겨졌고, 1925년 유림의 힘으로 「충현서원」을 다시 세우면서 서원으로 모셔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원을 다시 세울 때, 원래 모셨던 7인의 위패도 복구되었고, 그 동안 별도로 제사[別祀]를 지내었던 서기 선생도 같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 충현서원은 1969년 사단법인으로 결성되었고, 이사회를 통한 운영을 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강당이 중건되었다. 현재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서원의 유사들이 봉심을 하며, 봄·가을 1년 두 차례 제사를 지낸다.

4. 공암의 마을유래와 고청굴(공암굴)

공암은 계룡산의 한 줄기인 고청봉을 주산으로 하고, 왼쪽[좌청룡]에는 봉곡산, 오른쪽[우백호]에는 우산봉, 안산[남주작]으로는 응봉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북향한 마을이다. 이 마을을 왜 공암이라고 불렀을까?



공암굴

공암(孔岩)의 사전적 의미는 ‘구멍바위’, 혹은 ‘구멍 뚫린 산’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의 이름은 마을 동쪽에 있는 공암굴(혹은 고청굴)에서 유래한다. 공암굴은 충현서원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높이 20척, 너비 12척, 깊이 30척의 굴이다. 이 굴에는 고청 서기의 탄생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진다.

서기의 아버지는 남의 집 종이였는데,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씨 덕분에 풀러나 소금장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갯가 염전에서 소금을 받아서 팔 수 있는 한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소금을 팔았다. 그러다 보니 한 달이면 두어 번 집에 들르는 나그네의 신세가 되었다. 때로는 주

막에서 선비들끼리 글을 나누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같은 방에서 묵을 때 글 읽는 선비를 보면서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계룡산도, 오서산도 몇 번이고 넘었다. 바다에서 멀수록 소금은 잘 팔렸기 때문이다.

이날도 소금집을 지고 금강을 따라 오다가 말티재를 넘어 들판에 이르렀다. 그런데 고개를 넘을 때부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말티재 주막에 묵을 생각도 있었으나, 소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고개 너머 민가를 찾기로 했다.

그런데 들판에 이르렀을 때 먹구름이 거세지면서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소금을 버리지 않으려면 우선 비를 피해야 했다. 걸음을 바빠 하여 냇가에 이르렀을 때, 빗방울이 비치기 시작하였다. 서둘러 징검다리를 건너는 그에게, 빗방울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를 쫓는 한 색시가 눈에 들어왔다.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다. 소금 가마니를 지고 바빠 피할 자리를 찾다가, 큰 바위굴을 발견하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기진맥진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동안에 흠뻑리던 빗방울은 폭우로 변하고 있었다.

이때 굴 속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일순 섬칠했으나, 조금 전에 본 색시임을 알고 안도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그들은 꿈쩍도 못하고 하룻밤을 함께 새웠다. 이 인연으로 색시는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그 아이가 서기 선생이라고 전해 내려온

다. 서기 선생이 태어난 후 3년 동안 계룡산 정상에는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아기가 계룡산 정기를 모두 흡수하여 태어났기 때문이라 한다. (조재훈, 「鷄龍山の 傳說」(『鷄龍山誌』, 忠淸南道, 1994)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삼국유사』에나 나올 법한 이 전설은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공암 주민의 정신적 고향과도 같은 이야기로 전해진다. 조선시대 엄격한 신분적 질서 속에서, 서자(혹은 노비)라는 미천한 신분의 한계를 딛고 학자로 우뚝 선 고창 서기의 성공담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후대에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을 것이다. 전설 속에 소금장수가 등장하는 것은, 아마 옛날 공암 근처까지 금강물을 거슬러 올라온 소금배가 드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산림박물관이 위치한 금강변 마을은 배에 싣고 온 소금이 불티나게 팔려서 ‘불티나’라는 지명까지 생겼다고 한다.

고창굴의 서쪽 건너편 고청봉(孤靑峯) 중턱에는 그의 묘소가 있다. 서기선생은 오늘도 무덤 속에서 공암굴을 내려다 보고 있다. 고창굴이라고도 하는 이 굴에는 최근까지도 무당들이 신도들과 함께 글 공부를 성취하라는 기원을 드렸었다.

굴의 왼쪽 벽에는 지름 3~10cm 정도의 구멍이 수 십 개 있다. 아마 자식의 출산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알구멍일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신앙대상으로 삼아 온 공암굴은 생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성혈(性穴)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몇 해 전까지도 북어가 매달려 있고, 알구멍에 물이 가득했던 이곳에, 이제는 십자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서구문화에 밀려난 것처럼 …….

5. 마티고개 전설

지금은 공주로 가려면 마티터널을 통과하지만, 전에는 말티고개를 넘었다. 이 고개에는 가난한 농부가 그의 효행에 감복한 산신령의 도움으로 잘 살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깃 들어 있다.

아주 옛날, 고개 아래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산에서 나무를 해서 장에 팔아 얻은 돈으로 생계를 꾸렸다. 비록 글을 배울 형편은 아니지만 끼니를 걱정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혼자 부모를 봉양하며 살았다. 부모가 조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읍내 장터를 다 돌아서 구해오는 효자였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산으로 나무하러 가려하는데, 아버지가 산머루를 먹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데 계절은 이미 추위에 들어선 초겨울이었다. 서리가 내린 산에 산머루가 있을 리 만무였다.

그러나 아들은 선선히 대답하고, 머루가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산을 다 뒤져도 머루는 없었다. 늦게 나무를 한 짐 지고 돌아온 아들은 몸둘 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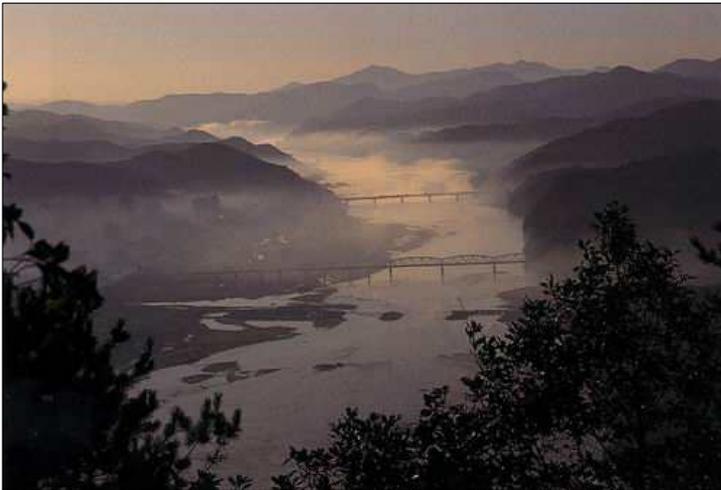
몰라 했다.

이튿날 아침에는 소의 간을 먹고 싶다고 했다. 열심히 일을 하면 구해드릴 수 있는 것이기에, 무리를 하다가 병석에 누워 꿈쩍도 못하게 되었다.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먹고 싶어하는 소의 간이 생각났다.

그런데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나서 그의 이마를 만지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아침이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거든 뒷산 왕골 바위를 찾아가 보아라. 거기에 가면 말 한 필이 놓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 그것으로 부모를 더욱 더 정성껏 모시도록 해라”

날이 밝아 일어나니,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몸이 가벼웠다. 그리고 왕골바위로 뛰어가 보니 말 한 필이 놓여 있었다. 그 말을 끌고 장터에 가서 소의 간을 사다 아버지께 드리고, 더 많은 장작을 운반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고개를 말티고개[마티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6. 청벽과 딸아구의 이생전설



창벽에서 바라본 금강 전경(사진/신용희)

청벽은 창벽(蒼碧)이라고도 한다. 청(靑)과 창(蒼)이 모두 푸르다는 의미이다. 또한 벽(碧)은 푸른 옥돌을 가리키니, 절벽 아래로 푸른 강물이 흐른다는 뜻이다. 창벽은 장기면 금암리 금벽정 맞은 편, 지금은 산림박물관으로 진입하는 임시도로 가의 기암절벽으로, 금강의 절경 가운데 백미(白眉)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기에 조선 선조 때 충청감

사 유근(柳根)은 공산성 공북루(拱北樓)에 올라 시 한귀를 짓기를

소동파는 적벽강에 놀았으나
나는 지금 창벽에 놀고
유양(庾亮)은 남루에 올랐으나
지금 나는 북루에 올랐노라

라고 읊고 있다. 금강의 창벽을 소동파가 놀았다는 적벽강에 비유하고, 남루를 대신하여 공북루에서 금강의 승경에 도취해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청벽대교 바로 아래에 ‘말아구’라는 마을이 있다. 말어구, 마라귀 등으로도 부른다. 이곳은 지금 ‘어씨네집’과 같이 참계, 메기, 빠가사리 등으로 끓인 민물매운탕으로 유명하다. 다리가 놓이기 전 이곳은 강을 건너는 나루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이 마을에 이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가정이 부유했고 존경도 받는 인물이었다. 어느 해였다. 계속된 장마로 금강물은 독이 터질 듯 흐르고 있었다. 홍수가 걱정이 되어 강가에 나왔는데, 집 한 채가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지붕 위에는 위급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저어 집을 강가에 끌어내었다. 그 집에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루와 뱀이 있었다. 이생은 빈털털이가 된 그 사내에게 이웃에 집을 지어주고 살게 했다. 논 마지기도 장만해 주고 서당에도 다니게 했다. 그것을 밋천 삼은 사나이는 아내도 맞이하고, 재산도 모았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이생은 백발이 가득해졌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그는 사랑채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백발 노인이 꿈에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자네는 정말 덕망이 높은 사람이다. 내일 뒷산에 올라가면 또 그대에게 큰 부귀영화가 돌아올 것이다. 각별히 앞날을 명심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노인은 사라졌다.

이상한 꿈이라 생각하면서 밤새 뜯눈으로 새우고, 이튿날 뒷산으로 올라가니 노루 한 마리가 달려와서 그의 소매를 물고 끄는 것이었다. 몇 해 전 자기가 살려준 노루였다. 노루를 따라 바위 밑에 도착하였는데, 문득 노루가 두 발로 땅을 마구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다.

그리고 노루는 몇 번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사라졌다. 이생은 큰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생이 살려준 이웃이 도적질을 하였다고 관가에 고했고, 이생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관가에 독사가 나타나서 이생과 관원의 발을 물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독기가 몸에 퍼진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부어, 죽음을 눈앞에 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큰 뱀이 옥에 있는 이생을 찾아왔다. 옛날 구해준 뱀이었다. 뱀은 이름 모를 풀잎으로 상처를 문질렀고, 부기가 빠지면서 몸이 거뜬해졌다.

이생은 관원에게 가서 같은 풀잎으로 관원을 구하고, 옛날 홍수 때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제야 관원은 이생을 풀어주었다. 감옥을 나온 후에도 따르던 뱀은 산길에 접어들자 어디론가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옛 일을 다시 생각하며 분통이 터진 이생은 지친 몸을 이끌고 청벽에 올라 “사람이 동물만도 못하구나” 하고 외치고, 가파른 바위에 “人不救”라고 크게 썼다. 아무리 불행에 허덕여도 사람은 구해주지 말라는 뜻이었다.

7. 갑사 입구의 당산제 전설

공주군 계룡면 중장리에 있는 갑사(甲寺) 입구에는 큰 당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이 당나무를 일명 괴목정(槐木亭)이라고 한다. 이 나무에는 매년 정월 초사흘날 저녁에 갑사에 있는 승려와 근처 주민들이 모여 당산제를 지냈다. 절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일은 좀처럼 없는 일이다. 갑사에서 당산제를 지내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전설과 관련이 있다.



갑사전경

갑사에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 뜰에 있는 장명등 불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꺼져버리는 것이었다. 등잔 속을 들여다보니 초저녁에 넣었던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나 밤마다 계속되자, 기름을 훔쳐 가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교대로 장명등을 지키기로 했다.

그날 밤 승려 한 사람이 장명등 근처에 숨어서 도둑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밤이 이슬하도록 지키다 깜박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불이 꺼지는 것을 느끼고 눈을 번쩍 떴다. 장명등 앞에는 8척이나 되는 장정이 서서 등에 기름을 바르고 있었다. 지키고 있던 승려는 냉큼 달려가 장정의 등덜미를 잡고 “기름도둑 잡았다!” 하고 고함을 질렀다.

승려들은 도둑이 꿈쩍 못하게 둘러싸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기에 불전을 밝히는 장명등 기름을 훔쳐 가는 거요?”

도둑이 몸을 흔들며 손을 뿌리치고 나서

“나는 이 절 아래에 있는 당산신이다.” 하고 말했다.

“당산신?”

승려들은 당산신이라는 대답에 당당하던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런데 신령님께서 왜 밤마다 기름을 훔쳐가는 거요?”

승려들의 물음에 당산신은 기름을 훔친 내력을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 발치에다 담배 불을 비벼 끄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장명등에 있는 기름을 매일 밤 가져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승려들에게 부탁하기를, 어느 여인에게 염병을 옮겨서 불공을

드리도록 하여 병을 고쳐주는 대신 시전(施田)을 좀 얻어내어 거기서 얻어지는 수확으로 자기를 잘 모셔주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그는 훌훌 아랫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당산신이 돌아간 뒤에 승려들은 한데 모여 의논하였는데, 모두들 당산신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당산신이 시킨대로 했더니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 일이 있던 뒤부터 정월 초사흘날이면 감사에 있는 승려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정성을 다하여 당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8. 계룡산의 으뜸 절 감사

계룡산에는 이미 백제시대부터 절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신원사 경내에서 발견된 백제 연화문 와당편, 그리고 불확실하지만, 구룡사(반포면 상신리)에서도 백제 와당편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백제시대 불교가 전래되고 공주가 남쪽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 계룡산에는 불교 사원이 들어서기 시작했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계룡산 지역에 백제시대 절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그리고 계룡산이 불교 성지로서 보다 분명히 부각된 것은 통일신라 때의 일인 듯 하다. 백제 멸망 이후 좌절된 백제의 유민들이 적극적으로 불교신앙에 접근하였고, 신라 정부에서도 불교를 통한 정신적 통일과 화합정신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정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라시대 계룡산에서 가장 번창한 사원은 감사였다. 감사는 옛 문헌에 ‘갑사(甲寺)’ 혹은 계룡갑사(鷄龍甲寺)로 표기되는데, ‘갑사’라는 말뜻 자체가 ‘첫째 가는 절’이고 보면, 역시 계룡산에서는 가장 크게 지속적으로 번창하였던 절이 감사였다고 하겠다.

감사는 화엄종 10대 사찰의 하나로 신라 눌지왕 4년(420)에 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는 설과 진흥왕 17년(557)에 혜명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지만, 모두 백제 지역에서 신라 승려들이 창건주가 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비교적 정확한 사실로는 문무왕 19년(679)에 의상이 중수하고 화엄대찰로 삼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통일 이후 감사는 특히 화엄종 사찰로 이름이 높았는데, 계룡산의 여러 절 중에서 웅천주의 치소였던 공주에 가장 근접한 위치이며, 신라 통합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화엄종 사찰이었다는 점에서 감사가 중앙 교단으로부터도 일정한 뒷받침을 받은 것임은 자명하다.

감사는 계룡산에 현존하는 사찰 중 가장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신라시대의 당간지주, 고려시대의 부도, 조선시대에 지어진 각종 절집, 그리고 작은 돌부처와 종(鐘), 월인석보의 판목 등 다양한 유산들이 이곳 저것에 흩어져 있다.

감사의 골짜기는 예로부터 갑사구곡(甲寺九曲)이라하여 더운 여름이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이 때문에 한말 일제 때의 어느 유명인사는 바로 이 감사 절 곁 물가에

별장을 짓고 자기과시를 하기도 했다.

갑사가 많은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는 것은 그 위치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갑사는 계룡산 어느 사찰보다 공주 시내에서 근접해 있어서 접근하기가 좋다. 지금은 대전이 가장 큰 도시이지만, 100년 전 까지만 해도 충청도에서 가장 큰 고을은 공주였다.

갑사에는 많은 문화유적들이 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으로는 갑사 철당간과 지주, 갑사부도, 갑사 공우탑, 표충원 등이다.

▶ 갑사 철당간과 지주

갑사의 철당간과 지주는 통일신라시대(9세기말) 것으로 원위치에 기단부까지 잘 남아 있으며 보물 제 256호로 지정되었다. 양 지주는 60cm 정도의 사이를 두고 서 있다. 당간 높이는 15m 정도로 직경 50cm의 철통 24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 철통들은 원래 28개로 전하는데 조선 고종 30년(1893) 7월 25일에 벼락이 떨어져 철통 4개가 부러졌다고 한다. 이 당간은 아래쪽 으로부터 다섯 번째 철통을 3조의 고리로 묶어 고정시키고 있다.



갑사 철당간

우리가 역사가 오래된 사찰에 가보면 흔히 사찰의 입구에서 돌로 만든 당간지주를 볼 수 있다. 갑사에는 철당간이 있지만, 대부분의 고찰에는 당간은 없어지고 당간지주만 남아 있다. 당간은 어디로 갔을까? 또한 당간의 용도는 무엇이였을까?

▶ 갑사 부도



갑사 부도탑

갑사의 대적전 앞에는 보물 제257호로 지정된 부도 한구가 있다. 부도란 고승들을 다비[인도에서 행하던 장례, 화장]한 후 나온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부처의 유골을 봉안하기 위해 세운 것을 탑이라 하고, 고승들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세운 것을 부도라 한다.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이 부도는 원래 갑사 뒤쪽의 중사자암에 세워졌던 것인데, 1917년에 쓰러져 있던 것을 현재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 팔각의 탑신은 앞 뒤 양면에 문과 자물쇠를 표현했고, 그 좌우로 사천왕상을 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조각기법이 탁월하고 웅건한 기상이 넘쳐 흐르며 각부의 장식 및 표현기법이 다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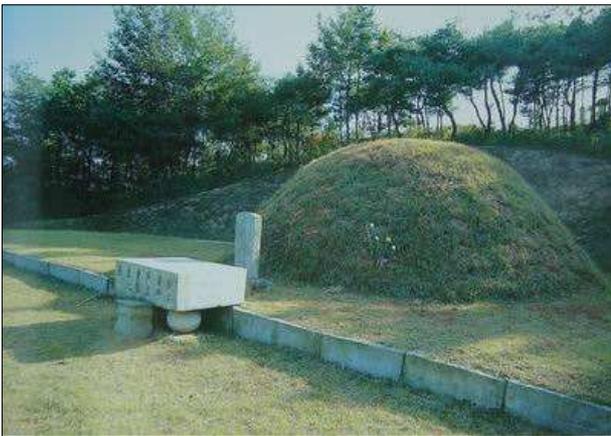
▶ 표충원

갑사 좌측편 언덕진 곳에 표충원이라는 사당이 있다. 절간에 웬 사당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 ... 이 곳은 임진왜란 때 왜적을 맞아 싸운 승병장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 1520~1604)과 사명대사 유정(四溟大師 惟政, 1544~1610), 그리고 기허대사 영규(騎虛大師 靈圭, ?~1592)의 영정이 봉안된 곳이다.

승려였던 이분들은 임진왜란 때 승병을 모아 왜적과 싸웠다. 갑사와 직접적인 인연이 있던 승려는 영규(靈圭, ? ~1592)이다. 그는 속성이 박씨인데, 공주 출신으로 계룡산 갑사에서 출가하고 뒤에 서산대사 휴정의 문하에서 법을 깨우쳐 그의 제자가 되었다. 공주 청련암에 있으면서 선장(禪杖)을 가지고 무예를 익히기를 즐겼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의병 수 백명을 규합하여 관군과 더불어 청주성의 왜적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중봉 조헌과 합세하여 왜적에게 함락된 청주성을 탈환한 후, 1592년 8월 18일 조헌과 함께 금산성 전투에서 최후까지 왜병과 항진하여 호남침공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부상을 입고 8월 20일에 현재의 비각자리에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고 전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승병을 일으킨 것은 그가 처음인데, 전국에서 승병이 쫓겨가는 도화선이 되었다. 영규가 계룡산 갑사 천련암(天蓮庵)에서 불도를 닦았으므로 표충원을 갑사 내에 창건한 것이며, 사명당 유정과 기허당 영규가 같이 서산대사 휴정에게 배웠으며 전공이 같음으로 함께 모셨다고 한다.



영규대사 묘소

9. 감사 공우탑 전설

사람이 동물에게도 은혜를 베풀면 그 동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다. 그래서인지 살상을 하지 않는 불문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여기 계룡면 중장리 감사 계곡에 서 있는 작은 삼층석탑인 공우탑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감사는 임진왜란 때 화를 입지 않았으나, 그 다음 정유년에 다시 침입한 왜적에 의하여 끝내 모두 불타고 말았다. 절간이 타자 스님들은 여기 저기로 뿔뿔이 흩어져갔다. 그러나 몇몇 스님들은 절을 복구할 기회만 바라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감사의 핵심을 이루는 인호 스님과 경순 스님, 성안 스님, 병윤 스님은 다른 사람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분발해서 절간을 짓자고 합의하였다. 각자 바랑을 메고 팔도강산을 누비고 다녔다. 그들이 일하기 시작한지 7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대웅전을 하나 세울 만한 돈을 모았다. 인부를 모았으나, 예상보다 돈이 많이 소비되어 대웅전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

이때부터 인호 스님은 걱정이 태산같았다. 밤낮으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 저녁엔 꿈에 소 한 마리가 집을 짓고 있는 들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다. 그 소는 일꾼들이 이리저리 몰아쳐도 들은 척도 않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머리를 숙인 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스님, 스님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셨으면 끝을 맺어야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을 지어드리지요.”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다.

인호 스님은 꿈에서 깨어 문득 문을 열어봤다.

“아니, 저 소가…”

하마터면 인호 스님은 소리를 지를 뻔했다. 스님이 소를 발견하자 소는 어디론가 뛰어갔다. 이튿날 새벽에 눈을 뜨자, 소가 서까래 재목을 운반해서 가득히 쌓아놓고는, 다시 뛰어갔다. 서까래를 가득 채워놓은 소는 이번엔 기왓장을 나르기 시작했다. 많은 기왓장이 사흘도 안되어 마당에 가득했다.

그래도 소는 뛰어 다녔다. 스님 네 사람이 앉아서

“무엇이 없는데…”

이 말이 새어나오기 바쁘게 물건을 구해왔다. 마루에 깔 나무가 쉬 상할 것 같아서 두터운 나무를 깔아야겠다고 한 스님이 말했다.

“마루만 깔면 이제 단청하기야 쉽지 않습니까. 마루에 향나무를 서너줄에 하나씩 끼워놓으면 천하에 없는 절간이 되겠습니다만 …”

이 말을 어찌 들었는지 소는 마루에 깔 나무를 날랐다. 그러다가 며칠 뜸하더니 향나

무를 지고 나타났다. 향나무를 운반하면서 소는 몇 번이나 쓰러지는 것이었다. 지친 것이다. 게다가 향나무는 백두산 근처에서 운반한 것이었다. 이 일을 마치고 소는 쓰러져 죽고 말았다.

스님들은 소의 노고에 감격하였고, 대웅전이 완공된 후 감사의 뜻으로 탑을 하나 세웠다. 감사 대적전에서 대웅전으로 오는 길목, 개울가에 작은 석탑이 하나 있는데, 이 탑이 바로 공우탑(功牛塔)이다.

10. 신원사와 중악단

신원사는 감사보다 더 오래된 계룡산 일대의 최대 고찰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계룡산 할머니와 이성계의 개국 전설이 담긴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광지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적은 편이다. 그 때문인지 계룡산의 고찰 가운데 가장 때가 덜 타고 고풍스런 모습이 잘 간직되어 있다.



신원사 대웅전

신원사는 백제시대 말 보덕이 창건하였으며, 신라시대 말 도선이 중창하고, 충렬왕 24년(1298) 무기가 중건하였다고 한다. 이후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중창하면서 영원전을 짓고, 고종 3년(1866) 관찰사 심상훈이 중수하였으며, 고종 13년(1876) 보연이 중건했다고 한다.

신원사 옆 중악단은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그런 까닭에 중악단보다 큰 규모의 절집을 짓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원사의 역사가 결코 짧지는 않다. 다만 발굴 등 학술적 조사작업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역사나 규모 등이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다.

신원사 옆 중악단은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그런 까닭에 중악단보다

신원사 옆에는 조선시대 말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던 중악단이 있다. 명산으로 널리 알려진 계룡산은 일찍부터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문헌기록으로 확인되는 계룡산에서의 국가 제사 기록은 통일신라 때부터이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때 명산대천 50곳을 대·중·소사로 나누어 제사를 지냈다. 당시 계룡산은 오악 중의 하나인 서악으로 중사(中祀)에 포함되어 있었다.

계룡산에 대한 제사는 고려시대에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에는 계룡산에 계룡산사(鷄龍山祠), 계룡단(鷄龍壇) 등이 있었다. 그리고 국가에서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제사지내게 하였는데, 조선시대 말에는 이곳에 중악단을 세우게 되었다.

계룡산 중악단의 현판은 1891년에 직지어사(直指御史) 이중하(李重夏)가 쓴 것으로 되

어 있는데, 1923년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광무년간(광무년간은 1897~1906, 고종의 재위기간은 1864~1906)에 광무황제의 명에 의해 계룡산신사에서 중악단으로 승격되었다고 하였다. 1931년에 편찬된 『조선의 풍수』에서는 고종이 황제의 제위에 즉위하자 다음 해 계룡신사를 폐하고 천자오악봉선(天子五嶽封禪)의 옛 뜻에 따라 이를 중악단으로 고쳤다고 하여 중악단 현판의 기록과 다소 연대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명산으로 소사에 해당하던 계룡산이 19세기말에는 오악의 하나인 중악이 된 것은 분명하다.

중악단은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산신 제단이다. 건물을 보면 그 배치가 절이나 서원과 다르다. 왕실에서 출입하였던 까닭에 궁궐형으로 중문, 안문 등을 달고 지붕 위에도 궁궐식으로 잡상을 그대로 달아 위세를 자랑하였다. 처마, 공포, 담장의 치장 등이 매우 정제되어 궁궐 건축의 의장처럼 우아하면서도 장중한 위용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감히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기도 하다. 중악단으로 들어가려면 수문장이 지키는 이중문을 통하여야 한다.

고풍스런 건물의 단 가운데에는 산신도를 모셨는데, 호랑이의 모습이 매우 해학적이다. 이전에는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또한 건물이 남향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와는 달리 서남향으로 되어 있다. 이는 중악단이 계룡산 신단이기 때문에 계룡산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은 결과인 듯하다.



신원사 중악단

11. 계룡산 산울림 전설

백제 때 지금의 신원사 부근에 한 노파가 살고 있었다. 혼자 살았지만 꾸준히 일을 해서 궁색하지는 않았다. 그 노파가 믿는 것은 오직 부처님이었다. 열심히 불교를 믿은 결과, 불교에 능통하게 되었고, 세상일을 볼 수도 있게 되었다.



수정봉과 괴암

근처에는 산짐승이 많았다. 그러나 산짐승들에게 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항상 산짐승들을 보살피 주었다. 그러나 유독 흰 범 한 마리는 잡아먹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사나운 범의 으름장에도 노파는 우습게 받아넘기고 아랑곳없이 자기 일을 해나갔다. 흰 범이 노파를 잡아먹으려고 뛰어

가 보면, 노파는 예상했다는 듯이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써서 기둥에 붙여 두었다. 범의 눈에는 집도 노파도 보이지 않았다.

눈이 오고 바람이 심한 어느 추운 날, 먹을 것을 찾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던 흰 범은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며 굴뚝으로 나왔다.

“웁지 그 노파를 잡아 먹어야겠다.” 흰 범은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단숨에 노파 집 앞까지 왔다. 집은 조용하기만 했다. 불을 켜놓고 기도를 할 시간인데 불도 밝히지 않았다. 범은 조용히 방문까지 다가갔다.



장군봉

범이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범은 방안에서 노파를 기다리기로 했다. 노파는 그날 하마루장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늦게 집에 돌아왔다. 노파는 집에 돌아와서 보니, 방안에 범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파는 범에게 남의 집 안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앉은 연유를 물었다. 범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냐고 큰 소리를 쳤다. 노파는 부적을 쓸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피를 내어 마지막 소원으로 먹기 시험을 하자고 했다.

먹기 시험이라는 말에 범도 승낙을 했다. 노파는 한 바가지에 흰떡을 담고, 다른 바가지에는 깨진 그릇을 채워서 돌아왔다. 노파는 흰떡을 담은 바가지는 자기가 가지고, 깨진 그릇을 담은 바가지는 범에게 주었다. 깨진 그릇조각을 먹을 수 없었던 범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기에 진 범을 앞에 두고 노파는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 되어 여기에서 살아야 한다. 계룡산 굴 속에 있는 네 처자식 곁엔 못가느니라” 하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범은 사람으로 변해갔고, 이 때 범이 으르릉 대면서 울부짖는 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퍼져나갔다. 그리고 사람으로 변한 범은 노파의 아들이 되어 그 집에서 살다 죽었다고 한다.

지금도 신원사 부근에서는 나라에 수난이 있을 때마다 계룡산에서 큰 산울림이 들린다고 하는데, 그 소리는 범이 울부짖었던 소리라 한다.

12. 구룡사 절터와 날매탑

갑사의 반대편 계룡산 동북편 기슭[반포면 상신리]에는 넓은 절터가 남아 있다. 이곳이 구룡사가 있었던 곳이다. 구룡사(九龍寺)는 신라~고려시대에 걸쳐 번영했는데, 절의 면적으로는 계룡산에서 가장 넓다. 지금은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만이 외롭게 서서 당시의 영광과 번성을 전하고 있다.

광대한 규모의 절임에도 불구하고 구룡사와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다. 그리고 폐사된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1980년대 말에 있었던 발굴작업에 의하면, 폐사된 시기는 고려말 내지 조선초로 추정된다.

구룡사가 있는 계룡산의 골짜기가 ‘용산구곡(龍山九曲)’이다. 이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금잔디고개와 맞닿는다. 그리고 이곳에 유명한 오늬탑(남매탑)이 있다. 7층, 그리고 5층의 석탑인 오늬탑은 한 스님과 남매의 의를 맺은 비구니 사이의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 이들 두 의남매가 함께 수행하다가 동시에 열반에 들었는데, 그 사리를 모신 것이 바로 이 탑이라고 한다.

백제가 망한 후 한 왕족이 이곳에 와서 토굴을 만들고 수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에 문을 열어 보았더니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는 호랑이에게 자기를 해치러 온 것이냐고 물은즉, 호랑이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무서움을 무릅쓰고 호랑이 입 속을 살펴보니 뼈가 입 속에 걸려 있었다. 그 뼈를 빼주었더니 호랑이는 고맙다는 듯 머리를 몇 번 숙이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런데 이튿날 밤 이상한 소리에 나가보니 호랑이가 멧돼지를 잡아 가지고 와 있었다. 그는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이구나 하고 가까이 가서 타일렀다.

“앞으로 절대로 생물을 해치지 마라. 생물을 해치는 것은 좋은 일이 못되느니라.”

그러자 호랑이는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더니 또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며칠 후 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날 밤, 바깥에서 호랑이의 기척에 나가봤더니 젊은 여자 한 사람을 곁에 놓고 달아나는 것이었다. 그가 사연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그 여자를 방에 데려온 후 사연을 물어보니, “저는 경상도 상주에 삽니다. 시집을 가게 되어 혼사를 치르고 남편과 신방에서 자다가 잠깐 바람을 쏘이려고 밖에 나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인은 상당히 상심한 듯 머리를 떨구고 옷고름에 눈시울을 닦았다. 그는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산에 눈이 수북하니 눈 녹은 봄철까지 여기에서 기거하시다가, 집에 가시오” 하고, 그날부터 같이 기거하게 되었다.

봄이 되자 중은 그 여자를 앞장 세워서 집을 찾았다. 그러나 막상 돌아온 딸에게 부친은 외면하더니 말을 꺼냈다.

“내 딸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것을 그대가 구해줬으니 그대의 것이로다. 그대가 데리고 살아야 한다.” 하고 데려갈 것을 강력히 권하는 것이었다. 그는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저는 한 방에서 따님과 같이 기거했지만 아직 아무 일이 없었소이다. 어서 다른 곳으로 출가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막무가내였다. 그러나 스님이 간절하게 청하였고, 마침내 집에 있기로 승락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홀연히 집을 떠나 다시 계룡산을 찾았고, 그녀 또한 머리를 깎았다. 두 사람이 불도에 정진하면서 덕은 날로 높아갔고, 많은 신도들이 찾아들었다.

그리고 함께 열반에 든 의남내의 몸에서 사리가 나왔고, 두 사람을 기리기 위하여 신도들이 석탑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남매탑의 주인공이 백제의 왕족이라는 이야기는 남매탑이 부여 정림사터 탑과 같은 백제계 탑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전설의 주인공이 신라 성덕왕 15년(716)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입국한 상원화상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이는 동학사를 창건한 회의 스님이 스승이었던 상원화상의 사리탑을 세우고 동학사를 창건했다는 이야기와 연결 지은 때문이다. 이렇듯 탑과 얽힌 사연들을 짐작할 수 없어서 궁금증이 더하게 된다. 한편 남매탑 자리에 ‘청량사’라는 절이 있었으므로, 학자들은 남매탑 대신 ‘청량사지 쌍탑’으로 부르고 있다.

남매탑은 서로 층수와 크기가 다르고, 만든 수법에도 차이가 있다. 두 탑이 고려시대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제작된 것이 아닌 셈이다. 백제의 옛 도읍지 계룡산 봉우리에 신라가 망한 다음 세워진 2기의 백제 계통의 탑, 그것은 백제정신의 계승을 회구하는 백제 후예들의 간절한 열망과 정신이 불교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13. 동학사와 속모전

동학사는 갑사의 반대편 계룡산 동측에 있다. 산골짜기 사이로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계곡을 앞으로 하고 남쪽을 향하여 터를 잡았다. 그리고 골짜기가 깊어 자연히 터가 좁기 때문에 동서로 길게 전각들이 배치되었다.



동학사 전경

동학사가 유명한 절이 된 것은 대전이라는 신흥도시를 가까이 하게 된 근년의 일이다. 그렇다고 옛날 그 절의 존재가 미미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계룡산의 다른 고찰에 비해 그렇다는 말이다. 이 절은 신라 성덕왕 23년(724) 상원이 암자를 지었던 곳에 회의가 절을 크게 지어 상원사라 하는 데에서 유래한다.

고려 태조 4년(921)에는 도선국사가 중창하여 태조의 원당이 되었다.

한편 936년 신라가 망하자 대승관으로 있던 유차달이 이곳에서 신라 시조와 박제상의 초혼제를 지내기 위해 동학사로 이름을 바꾸어 확장했다는 전설도 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진다. 동학사의 오늘날 정식 한자 표기는 학 학(鶴)자 동학사(東鶴寺)이다. 그런데 배울 학(學)자 동학사(東學寺)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鶴의 경우는 절 동쪽 학 모양의 바위가 있다 하여 그렇다고 하고, 學의 경우는 우리 나라에서 성리학을 연 정몽주를 제사 지낸다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이 외에도 불교 이외의 이야기거리가 많다. 동학사 동편 아래에는 조선시대 사육신을 모신 숙모전(肅慕殿)이 있고, 고려 말 충절을 바친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등 충신의 위패를 모신 삼은각(三隱閣), 그리고 신라 눌지왕 때 충신 박제상의 위패를 모신 동계사(東鷄祠)도 자리하고 있다.

동계사는 936년에 고려 개국공신 유차달이 건립했다고 한다. 고려태조 원당(願堂)이었던 동학사에 왔던 길에, 신라에 대한 충성심을 되새기면서 신라 시조와 박제상의 초혼제(招魂祭)를 지내면서 지었다는 것이다.

숙모전의 바로 동편 삼은각은 길재가 1394년(태조 3)에 동학사에 와서 단을 쌓아 그의 스승 정몽주의 위령제(慰靈祭)를 올린 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1399년(정종 원년)에는 유방택이 길재가 만든 단을 단장하고, 자신의 스승 이곡(李穀)의 아들 이색(李穡)의 넋을 기리는 제를 올렸다. 이듬해 공주목사 이정간(李貞幹)이 그 터에 집[閣]을 세웠다. 그리고 길재가 돌아가신 후에는 추가로 모시면서 세 분의 호를 따라 '삼은각'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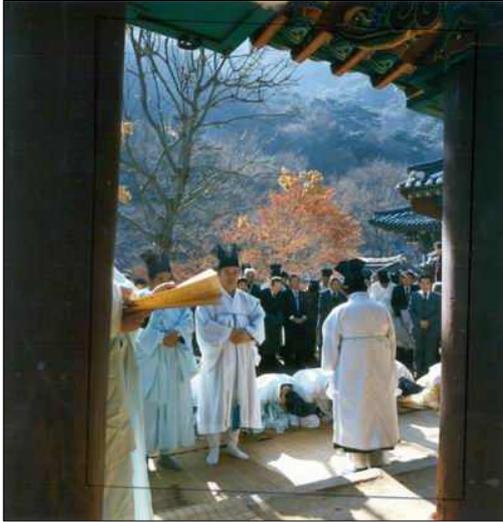
시대가 흘러 1456년(세조 2) 단종 복위를 준비하던 사육신들이 죽은 후, 생육신 김시습이 서울 노량진에 버려진 이들의 시신을 몰래 암장하였다. 그리고 동학사로 와서 삼은각 옆에 단을 만들어 사육신에 대한 초혼제를 지냈으니, 이것이 숙모전의 효시이다.

이듬해 9월 세조가 오대산·속리산을 거쳐 동학사에 들른 길에 삼은각과 사육신 초혼단 자리를 보았다. 그리고 비단 여덟 폭에 사육신 및 이들과 관련하여 죽은 백여 인의 성명을 적고, 또한 고려 임금의 성명을 적어서 동학사에서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다.

한편 이해 10월 단종이 강원도 영월에서 17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이 때에도 영월 호장 엄흥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관에 모시고 암장을 하였다. 그리고 단종이 입었던 옷을 수습하여 동학사에 도착하여 김시습과 함께 '품(品)자 모양의 단을 만들고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동학사 입구 숙모전



숙모전 제례

1458년(세조 4)에는 세조가 다시 조치를 취하였다. 동학사에 단종과 안평대군, 금성대군, 그리고 계유년 정변 때의 세 정승(皇甫仁·金宗瑞·鄭本), 이와 관련하여 죽은 사람과 병자원적(丙子冤籍)에서 누락된 100여 명을 추가로 적어서 내리면서 각을 짓게 하고, 초혼각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동시에 주위 20리의 땅을 내리고, 토지 25결을 더 지급하여 유생과 승려로 하여금 매년 10월 24일에 대제를 지내게 하였다. 1467년(세조 13)에는 김시습과 조상치 등이 회의하여 매년 3월 15일을 제일(祭日)로 정하였는데, 이 때부터 봄·겨울에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620년(광해군 13)에는 제학 황정철(黃廷詰)은 초혼각의 관리를 위한 규칙[守護節目]을 고쳐 만들고, 선비를 심부름꾼[有司]로 삼아 영구히 보존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참판 정천경과 상의를 하여 유방택(柳方澤)·김시습(金時習)·조상치(曹尙治)·조려(趙旅)·성희(成熺)·송간(宋侃)·이축(李蓄)·정지산(鄭之産) 등 8선생 또한 초혼각에 함께 모시게 [配饌] 하였다.

그러나 1728년(영조 4)의 무신란이 발생하면서 신천영(申天永)이라는 자가 초혼각과 동학사에 불을 질러 건물이 모두 불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 세조가 하사한 혼록(魂錄)과 도장[印信]은 다행히 타지 않았다. 이 사건을 겪은 후 승려 월인(月仁)이 토굴을 만들고 그 속에 모셨는데, 혼록은 없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여러 벌을 만들어 천장암·대비암·천비암 등 각 암자에 모셨다. 한편 『공주읍지』에는 당시의 신비스러운 일화가 전한다. 불이 났을 때 도장이 스스로 튀어나와 샘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샘 속에서 서광이 비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찾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여러 사건을 겪다가 한동안 화재로 소실되어 방치 상태로 있기도 하였다. 그런데 1829년(순조 29)에는 동학서원의 건립이 시작되어, 이듬해 준공되기도 하였다. 불교의 사찰이 유교의 서원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건립과정에서 주도했던 인물이 동학서원의 유생들과 마찰을 빚어 사형을 1836년에 사형을 당하고, 동학서원도 세워진지 겨우 6년만에 함께 훼손되었다.

1864년(고종 원년)에는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여 가람 40칸과 함께 초혼각 3칸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904년(광무 8)에는 광무황제의 명으로 초혼각을 “숙모전(肅慕殿)” 이라 이름을 바꾸고 사액을 내렸으며, 단종비 정순황후를 단종의 위패에 같이 모시게 되었다 [合櫛].

일제강점기였던 1916년에는 김복한(金福漢)·최영조(崔永祚)·송계헌(宋桂憲) 등을 중심으로 증축을 하였고, 1921년에도 증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규모는 정전 6칸, 동·서무 각 4칸, 삼문 3칸이 된 것이다. 1924년에는 삼은각에 여말의 학자 도은 이송인(陶隱 李崇仁)과 죽간 나계종(竹幹 羅繼從)을 다시 모시게 된다.

숙모전(동계사, 삼은각)은 우리역사에서 세 왕조에 걸쳐 있었던 충신들이 함께 모셔져 있는 곳이다. 동학사 입구에는 지금도 홍살문이 서 있는데, 국가의 대표적 충신을 제사하고 그 뜻을 기리는 곳이므로 홍살문이 선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계룡산지』 (충청남도, 1994)

『계룡산』 (정종수 글 / 서헌강 사진, 대원사, 1996)

『문화가 살아있는 이야기 공주』 (공주향토문화연구회, 1997)

『공주의 향교와 서원』 (공주문화원, 1998)

『동학사』 (추만호 글 / 임민수 사진, 우리문화연구원, 1999)

『공주의 자랑(공주시지 별책)』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고청서기와 충현서원」 (임선빈, 『공주의 역사와 문화』, 1995)

「영원한 충청인의 고향 계룡산」 (이해준, 『열린충남』 18, 2002)